

인간 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그 유용성¹⁾ -

윤진 · 김정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평생발달과정에서 심리적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맥락 환경 사이의 “조화의 적합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기질에 대한 정의, 연구의 역사,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Thomas와 Chess의 기질 연구 (NYLS), 그리고 그들의 유형론적 접근을 논의한 후 몇개의 국내 연구들도 검토하였다. 본문에서는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정의를 논의하고, 최근 개정된 기질차원 측정척도 (DOTS-R)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비교문화적, 대인관계, 학업성적 및 정신 건강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이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이 모델이 인간발달 및 적응과정에서 갖는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제안 등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I. 서론 : 기질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머릿말

최근, 한 평생에 걸친 발달과정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논의할 때, 개인이 가진 ‘기질’ (temperament)과 그 기질이 주위 환경 및 맥락 사이에 갖게 되는 “조화의 적합성”²⁾(Goodness-of-fit)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관심은 단순히 영아, 유아기의 부모 및 양육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부모-교사-또래와의 관계, 가족관계 (성인기 부부간의 애정과 화합,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노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 등)와, 직장 및 사회 조직에서의 동료-상사-부하와의 적응 등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발달심리학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예 : Thomas & Chess, 1968, 1977; Lerner & Lerner, 1983), 국내에서도 유아 및 아동(예 : 최영희, 1988,1990; 천희영, 1991), 그리고

1) 이 논문은 윤진이 1990년 8월부터 1991년 5월까지 Fulbright 연구교수로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연구할 때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쓰여졌다. 이 논문 작성은 물론, 1년간의 체재기간 동안 세미나 참석, 토론 등 여러가지로 도움을 준 Richard Lerner와 Jacqueline Lerner 부부, Steven Zarit, Robert Plomin, 그리고 Charles Super 와 Sara Harkness 부부 등 여러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2) 여기서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이란 개인 행동의

능력, 동기, 스타일 등이 그를 둘러싼 환경의 기대, 요구 등과 적절하게 들어맞음을 의미하며,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조화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는 “조화의 부적합성”(poorness-of-fit)라고 번역하였다.

성인, 노년기 및 가족관계(예 : 윤진, 1983) 연구 등에서 서서히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연구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 글의 제 I부에서는 기질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정의 문제, Thomas 와 Chess의 뉴욕장기종단적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 약칭 NYLS)에서 제시한 기질에 대한 개념과 유형론적 접근을 상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한, 제 II부에서는 그들이 주장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이 모델의 정의를 논의하고, 실제 적용과 연구를 통한 자료(기질차원 측정도구 개발, 비교문화적, 대인관계, 학업성적, 그리고 정신건강 등)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 III부에서는 이 모델이 갖는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함의, 그리고 제한점 등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여러 학자들의 접근중에서 특히 Thomas와 Chess의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모델을 중심으로 기질의 본질을 논의하려는 것은, 그들의 관점이 기질의 기능적인 측면을 ‘발달적-맥락적 접근’(developmental-contextual approach)에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발달적-맥락적 접근’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분석수준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인간행동과 발달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는 입장이다(Lerner, 1986; Lerner & Lerner, 1983).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인간 행동의 발달을 보다 광범위하고 융통성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2. 기질의 연구역사와 정의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논의할 때, ‘기질’(temperament)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기질의 개념이 사용된 것을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Galen) 부터 시작하여 체형론적 입장의 학자들(Kretschmer, Sheldon), 성격이론가들(G. Allport, R. Cattell, H. Eysenck, J. P. Guilford), 그리고 초기 발달심리학자들(A. Gesell)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질’이란 개념적 구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간에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아 본다면, ‘기질’이란 한 특질(trait) 자체가 아니라 서로 관련되는 일군의 특질들을 가리키는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기질은 발달심리학외에 다른 여러 분야들-성격이론, 생리심리학, 정신신체의학, 행동유전학, 그리고 교육학등-에서도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nberg, 1983).

현재 기질에 대한 여러 이론적 접근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질의 생물학적인 근거와 발달상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기질연구가 주로 아동기에 치중된 이유는, 기질과 행동사이의 관계가 유아기에는 비교적 직접적이지만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점차 복잡해진다는 공통적 기본가정 때문이다. 둘째, 기질은 종(種) 전반에 걸친 공통적 특성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 즉 ‘개인차’를 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여러 이론적 접근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 첫째, 아동기의 행동 가운데 어디까지를 ‘기질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그 경계선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 둘째, 기질을 구성하는 차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차원들은 ‘활동수준’(activity level)과 ‘정서성’(emotionality) 등 두 가지 뿐이다. 그리고 기질이 성격의 한 요인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나, 기질과 성격이란 두 개념간의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는 역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여러가지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이들 중 어떤 것은 기질이 성격의 유전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Buss & Plomin, 1975, 1984), 또 다른 관점들은 기질이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행동유형’이라고 주장한다(Thomas & Chess, 1977). 이론적인 접근방식에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은 ‘개인의 적응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상의 개인차’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기질이 곧 ‘개인차’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것이 개인차가 나는 여러가지 차원들 및 경향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개인차가 주된 관심사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접근들은 모두, 기질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차원이나 경향성”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질은 개인

내에 존재하나 그 표현은 환경 및 과거 경험에 의존하며, 기질에 따른 개인차는 성격의 다른 차원들보다 발달 과정이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가 적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3. 기질에 대한 유형적 접근 : Thomas와 Chess의 NYLS를 중심으로

기질에 대한 유형적 접근(style approach)인 Thomas와 Chess의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발달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NYLS에서 기질을 발달 초기에 나타나는 ‘행동적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은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있어 특히 빠르거나 느릴 수 있다. 이러한 기질은 행동의 ‘동기’나 ‘내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행동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질을 ‘유형’(style), 즉 비동기적인 것으로 보려는 것은, 자칫 기질의 행동유발 역할을 배제시키려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유아의 기질이 부모의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Thomas & Chess, 1980, pp. 59-65).

한편 Thomas등은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스타일 간에, 그리고 한 개인 내에서 기질, 동기, 능력들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이후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달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관점, 특히 ‘개별적’(Ipsative)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별적’ 접근은 한 개인의 발달을 보다 사례기술적(idiographic) 입장에서 보고, 유기체 자신의 특성이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기체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전성설(前成說)적 입장이나 환경론적 입장의 어느 한 극단을 거부하고, 개인적 특성의 근원이 유기체의 내재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때로는 상호작용론적 입장이 연구 수행의 지침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동안 기질에 대한 이론들이 개인의 특성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었음을 고려할때, 이제 비로소 두가지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Lamb, 1980).

기질 연구의 출발점이 된 뉴욕장기종단적연구(NYLS)는 1956년 133명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아동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객관적인 보고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9개의 기질범주가 기능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1) 활동수준(Activity level) ; 아동의 운동적 행동에 대한 묘사(근육의 움직임 정도)
예) 아동이 식사할때나 놀때, 또는 잠잘때 많이 움직이는가?
- 2) 규칙성(Rhythmicity) ;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s)에 있어서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예) 아동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배고파하는가, 그리고 배변 시간이 규칙적인가?
- 3) 접근 또는 철회(Approach or Withdrawal) ; 새로운 자극에 대한 처음의 반응
예) 새 장난감을 처음 접했을때 접근하는가, 또는 회피하는가?
- 4) 순응성(Adaptability) ;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
예)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가, 아니면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 5) 반응역(Threshold of responsiveness) ;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자극의 강도
예) 아동이 약한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 6) 반응강도(Intensity of reaction) ; 반응의 에너지 수준(양이나 방향과는 무관함)
예) 아동이 소리지르며 크게 우는가 아니면 훌쩍거리며 우는가?
- 7) 기분(Quality of Mood) ; 유쾌한 행동의 양과 불쾌한 행동의 양
예) 아동이 자주 미소짓고 잘 웃는지, 아니면 자주 인상을 찌푸리며 잘 우는지?
- 8) 주의전환성(Distractibility) ;하던 행동이 외부 자극에 의해 방해 받거나 변경되는 정도
예) 아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때, 불려서 식사하러 오도록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 9) 주의집중폭과 끈기(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 특정 행동을 지속해서 추구하는 기간,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동을 계속하는 기간

예) 아동이 하나의 과제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몇 분되기도 전에 다른 과제로 옮겨가는지?

이와같은 속성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질적분석한 다음, 다음과 같은 3개의 기능적인 기질패턴을 추출하였다.

1) 순한(Easy) 기질 : 이들은 생물학적 기능의 규칙성, 새로운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반응, 그리고 적절한 기분강도를 보인다. 이런 아동은 전체 표본의 40%를 차지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

2) 까다로운(Difficult) 기질 : 생물학적인 기능이 불규칙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부정적인 회피반응을 보이며, 변화에 적응이 느리고 부정적인 기분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오래 걸리고, 좌절되었을때 종종 발끈 화를 내는(temper tantrum) 아동들로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3) 더딘(Slow-to-warm-up) 기질 :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약한 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접촉한 후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흔히 '수줍어하는 아이들'로서 전체의 15%정도이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이와같은 3개의 기질집단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한 아동이 여러가지 기질의 다양하고 상이한 조합을 보일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3가지 범주 안에서도 각 아동이 보이는 기질의 정도는 각각 차이가 나타날수 있다.

한편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Thomas, Chess & Birch, 1968; Thomas & Chess, 1977). 예를 들면, 까다로운 기질패턴을 보이는 아동들은 아동기 전반과 중반에 걸쳐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부적 반응과 느린 적응력, 그리고 생물학적인 불규칙성 때문에, 주위 환경과 성인들로부터 받는 초기의 사회화에 대한 '적절한 요구'가 아동편에서는 스트레스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상 NYLS에서 70%에 해당하는 아동이 약한 정도나마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것은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정상아에 비해 정신지체아나 장애자의

경우 이와같은 부적응의 위험률이 더욱 높고, 특히 부모가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들은 정신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더 크다(Graham, Rutter & George, 1973).

그러나 변화와 적응에 대한 환경적 요구가 아동의 능력을 초과하여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라면, 기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기질패턴에서도 행동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행동적 장애의 발생에 있어 기질이 '언제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기질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기질에 관한 국내 연구는, Carey와 McDevitt(1978)의 [개정판 영아기질 질문지](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약칭 RITQ)를 통하여 한국 영아의 일반적인 기질을 탐색한 데서 시작되었다(심치정, 1979). 그리고 원영미(1987)는 Bates(1982)가 제작한 「영아특성 질문지」(ICQ)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들에서는 5~8개월 영아의 기질을 조사하여 성별과 어머니 빈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개정판 영아기질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최영희, 1987, 1988). 이 연구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순한' 기질을 많이 보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는 영아의 기질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정판 영아기질 질문지」는 타당도가 높아 한국 영아들에게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한편 최영희(1990)는 「유아기질 질문지」(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약칭 TTQ)로 측정된 한국 아동의 기질특성을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중간' 기질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질 유형은 모-자 상호작용 형태와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과도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3~7세 아동의 기질 특성을 어머니의 평정을 통해 연구용 기질평정척도를 개발한 천희영(1991)은, 「개정판 영아기질 질문지」와 「유아기질 질문지」 등의 문항들을 선별, 요인 분석하여 순응성, 활동성, 민감반응성, 식습관 및 신체구속성, 그리고 생리적 규칙성의 5가지 요인을 제시

하였다.

한편 “조화의 적절성” 개념은 아직까지는 국내 문헌이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윤진(1983)은, 이 개념을 ‘건강한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에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부모-자녀 간의 행동은 ‘양방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에 있으므로 아동이 가진 기질과 반응의 유형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형태가 달라지고(Bell, 1968, 1971), 이때 부모와 자녀간에 기질이나 행동특성에 있어서 서로 ‘적합한’(fit) 관계를 가져야만 부모-자녀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은숙(1984)은 Thomas와 Chess(1977)의 「부모용 기질 측정지」(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약칭 PTQ)를 이용하여 3~6세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고, 기질 및 양육태도가 적응의 지표인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한적’ 양육 태도보다 아동의 ‘인기도’(즉, 아동의 적응도)를 높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의 적절성” 개념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II.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개념 및 실제 적용

1.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의 정의

개인이 가진 기질의 독특성은, 신생아와 영아때부터 가진 신경화학적, 신경생리적, 그리고 뇌파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가설이 있다(Thomas & Chess, 1977; Bridger & Reiser, 1959; Grossman & Greenberg, 1957; Richmond & Lustman, 1955; Walter, 1953).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과연 ‘다양성’이 진화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게 한다. 생물학자인 Bryan Clark(1975)의 주장에 따르면, 다양성이 개체의 생존(生存)과 생식(生殖)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유기체에는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원리에 따라 형태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인간도 유전적으로 생화학적인 다양성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유아의 기질과 신경생리적 반응패턴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다양성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무의미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적 기능과 발달을 통합하고 총체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발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고전적인 관점은 생물학과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유전적 기여와 환경적 기여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띠어 왔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행동 발달이든지 종(種)의 유전적 특성이외에, 발달적인 맥락과 환경의 기여가 크게 마련이다(Schneirla, 1957). 따라서 발달은 하나의 변증법적인 과정이 되고, 개인의 총체적인 성격특성은 어느 연령 단계에서든지 특정 반응패턴과 그외 모든 심리적 결정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

개인의 다양한 행동 스타일은, 그의 기질패턴이 환경이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에 적응한 결과이다. 또한 개인이 지닌 기질특성은 주위 사람들로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기대나 요구를 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중류층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가, 이른바 “정상적” 규준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질패턴—즉, 까다로운 기질이나 더딘 기질—을 보일때, 부모는 종종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그 아이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환경적인 변화는 어떤 상황과 시기에서는 기질의 어떤 한가지 측면이 표현되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상황과 시기에서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측면을 고양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새로운 능력이 출현할때 그것은 부모나 교사의 태도를 변화시켜 아동의 발달경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매우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이는 그의 부모로 하여금 엄격하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유아기때는 심각한 행동장애를 겪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여 그의 음악적인 소질이 드러나 학교에서 뛰어난 연주자로 인정받게 되면, 부모와 선생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도 “자존감”을 갖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고약한 아이”에서 예술적인 기질을 지닌 “재능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기에 겪는 다소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적인 요구는 아동이 이전에 유지하던 적응수준을 극적으로 변경·하락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기때 비록 정서표현이 강렬하고 가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긴 했지만 대체로 ‘순한’ 기질을 가져 부모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으며 순조롭게 자라난 한 여자

아이의 경우, 청소년기가 되어 새로운 성(性)적 추동과 학교공부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래집단의 기준 등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자, 충동성에 대한 자기통제, 자신의 강렬한 정서적 반응의 억제 및 만족 지연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화를 내며 거짓말을 하는 등 주로 방어적으로 반응했고, 따라서 부모와 친구들을 괴롭히게 되어 그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문란한 성(性)생활, 그리고 단순노동 등 보잘것없는 직업으로 고전하게 되었다(Thomas & Chess, 1980, pp. 118-119).

발달은 모든 연령시기에 있어서 특정한 심리적 패턴을 강화, 수정, 혹은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좋은 소질과 환경은 좋은 발달적 결과를, 반대로 좋지 못한 소질과 환경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 양자의 중간적인 결과들은 좋고 나쁨(good-poor)의 조합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질과 환경사이의 '적합성'이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등장한다.

이와같은 관찰 결과에 근거를 두고 Thomas와 Chess가 제안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에 의하면, 발달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인은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consonance)이다. 즉 환경의 기대, 요구등이 개인의 능력, 동기, 행동 스타일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발달한다. 반대로 "조화의 부적합성"(poorness-of-fit)의 경우, 환경의 기대, 요구와 개인의 특성, 능력이 부조화되어 발달이 왜곡되거나 부적응적인 기능이 나타나기 쉽다. 심리사회적 맥락을 예를 들면, 만일 한 아동이 가진 기질적 특성이 중요한 타인들(예: 부모, 교사 또는 또래)에 의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 아이는 이런 속성으로 인해 적응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해주는 기질속성을 가진 아동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Thomas & Chess, 1977).

그러나, "조화의 적합성"이 반드시 스트레스나 갈등이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스

트레스와 갈등은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라나면서 획득하게 되는 기능도 높아진다. 환경적인 요구, 스트레스, 갈등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적 잠재력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기만 하다면, 행동적인 부적응을 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보다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행동적인 기능에 손상이 오는 것은 환경적 기대나 요구가 아동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조화의 부적합성"일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기인된다.

이와같이 인간의 발달을 태어나면서부터 유기체와 사회적인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한 인간은 그의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Lamb, 1978).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은 발달과정을 단순히 하나의 성숙과정이라고 간주할 때 흔히 간과되기 쉬운데, 이와같은 경시나 왜곡을 하지 않으려면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적인 상황내에서 다양한 행동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 이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모의 태도, 행동 그리고 가족 내외적 환경요소등의 '특정한' 속성들이 아동의 '특정한' 기질 및 유기체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심리적 발달을 달성한다는 사실이다.

2. "조화의 적합성" 모델 개념의 실제 적용

Darwin(1872)에 따르면 유기체의 적응에 있어 '행동'의 중요성은 그가 처한 상황적 맥락의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달려있다. 한편 유기체의 구조적, 기능적인 특성은 그 유기체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적응에 기여하게 된다(Schneirla, 1957). 한 개인은 그의 신체적 및 심리적인 특성(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ty)의 결과로 타인에 대해 독특한 반응양식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이 그에게 다시 귀환(즉, feedback)되어 그의 개성과 독특성을 증진시키는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와같은 Schneirla의 '순환적 기능'(circular function) 개념은, 기질-맥락 관계에 대한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개념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 개인이 그의 상황적 맥락이 요구하는 바에 대체적으로 부합될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가 받는 귀환반응 역시 긍정적

일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귀환반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 개인의 특성이 상황적 요구에 '적합함'(good fit)은 그 개인이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들간의 '부적합함'(poor fit)은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건강하게 기능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기질'(temperament)은 유아기 및 아동기를 통하여 개인이 가진 행동 특성의 여러가지 차원들의 조합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Thomas & Chess, 1977), 발달심리학 내에서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검증은 주로 '기질'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많은 자료들은 주로 Thomas와 Chess의 NYLS에서 도출되었거나 그들의 기질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이다.

1) 비교문화적 연구

기질적 속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과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대한 검증은 인류학적 접근에 바탕을 둔 비교문화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케냐(Kenya)의 Kokwet이라는 농촌사회의 유아들과 미국 보스턴(Boston) 도시지역에 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Super & Harkness, 1981)에 따르면, NYLS에서 연구된 기질차원들이 미국사회에 특수한 것이 아니며, 케냐와 미국의 두 표집의 자연 관찰과 면담자료들에서 기분(mood), 순응성(adaptability), 반응의 강도(intensity of reaction), 그리고 생물학적 규칙성(biological rhythmicity) 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케냐의 문화적 차이때문에 기질적인 속성들이 지니는 중요성의 정도는 상당히 달랐다. 즉, 동일한 기질적 속성을 지닌 아동이 상이한 맥락적 요구의 결과로 인해 서로 다른 적합성과 발달적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와같이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결과는 규칙성(rhythmicity)과 순응성(adaptability) 차원의 예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Kokwet의 유아들은 어머니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늘 어머니 품에 안겨있으므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머니의 품안에서 잠들거나 젖을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수면과 섭생에 있어서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 유아들도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스턴의 유아들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대개 어머니와 유아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로 시간표가 잘 짜여져 있다. 따라서 규칙성 수준이 낮은 유아들은 부모들이 부과한 요구에 적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켜 적절한 발달이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Kokwet의 규칙성 수준이 낮은 유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보스턴의 경우에는 '부적합함'(poor fit)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기질적 특성이 상이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용한 결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 결국 기질적인 '까다로움'(difficulty)은 아동 그 자신에게 있다기 보다는 그 특정한 기질적 속성이 놓여진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까다로움'이란 아동과 그들 맥락속의 주요 타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지 못하는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무엇이 '까다로움'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처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Super와 Harkness는, 서로 다른 맥락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기질적 속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념을 지닌다고 보고, 한 특정 맥락속의 사람들이 지니는 독특한 신념 체계를 "맥락특유이론"(ethnotheory)이라 불렀다. 이렇게 볼때, 서로 다른 맥락들간에는 기질적 어려움에 대한 서로 다른 "맥락특유이론"들이 존재하게 된다.

2) 기질차원 측정도구의 개발

한편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가정내의 부모-자녀 맥락을 넘어서, 다른 대인관계들 속에서 적용시켜본 연구들이 많이 있다. 주로 Richard M. Lerner와 그 동료들이 수행한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 및 아동기보다도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후기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그들은 아동의 기질과 그가 속한 맥락관계 사이의 '순환적 기능'(circular function)을 알아보고자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적용하여 기질적 특성을 연구했다. Lerner 등은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질차원검사」(DOTS,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1982), 그리고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DOTS-R, Revised Di-

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1986)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DOTS는 다섯 가지의 기질적인 속성들을 측정하는 3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는데 그 차원들은, 1) 주의집중폭 대 주의전환성(attention span vs. distractibility), 2) 순응성-접근 대 철회(adaptability-approach vs. withdrawal), 3) 활동수준(activity level), 4) 규칙성(rhythmicity), 그리고 5) 반응성(reactivity)이다.

한편 최근에 개발된 DOTS-R은 검사 대상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되었고 각각 54개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개정판 아동용 기질차원검사」[DOTS-R Child]는 학령전 아동들로부터 국민학교 저학년에 이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응답하도록 만든 검사이다. 그리고 「개정판 아동용 기질차원검사(자기보고)」[DOTS-R Child(Self)]는 국민학교 고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즉, 초기 청소년에서 후기 청소년들)를 대상으로 스스로 응답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편, 「개정판 성인용 기질차원검사」[DOTS-R Adult]는 성인들이 스스로 응답하는 검사이다. 이 세 검사들은 문항 내용은 모두 같으나 다만 지시문과 대명사를 바꾼 것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동용 검사인 경우는 다음의 9개 차원들을 측정한다. 1) 활동수준-일반(Activity Level-General), 2) 활동수준-수면(Activity Level-Sleep), 3) 접근 대 철회(Approach/Withdrawal), 4) 융통성 대 경직성(Flexibility/Rigidity), 5) 기분(Mood), 6) 규칙성-수면(Rhythmicity-Sleep), 7) 규칙성-섭생(Rhythmicity-Eating), 8) 규칙성-일상습관(Rhythmicity-Daily Habit), 그리고 9) 과제지향성(Task Orientation)이 그것이다. 성인용 검사의 경우는 위의 8)번 까지는 동일하나 9) 과제지향성 대신에 9) 주의전환성(Distractibility), 그리고 10) 끈기(Persistence)가 첨가되어 10개 차원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판 아동용 기질차원검사」(DOTS-R Child)의 7) '규칙성-섭생'을 측정하는 문항 "우리 아이는 매일 비슷한 양의 식사를 한다."에 대하여, A. 대개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은 편이다 C. 그런 편이다 D. 대개 그렇다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기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DOTS와 DOTS-R은 "조화의 적합성" 모델

에 따라 개인의 기질에 관련된 맥락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다. 특히 Lerner 등은 이런 여러가지 맥락적인 요구들 가운데서도 아동의 기질에 대하여 부모 등 중요한 타인이 지니는 태도, 가치, 기대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 혹은 또래들의 '기질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끈기'(persistence)는, "나는 오랫동안 한가지 활동을 지속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모의 '예기적인 요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라면 "나는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한가지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와 같은 문항이 사용된다.

또한 DOTS 및 DOTS-R의 문항들은, 한 개인의 행동스타일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 혹은 또래들이 어떤 기질적 속성을 '까다로운'기질이라고 지각하는지 알아봄으로써 그들 각각이 지닌 기질에 대한 "맥락특유이론"(ethnotheories)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3)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기질차원 검사(DOTS)를 사용한 초기 연구에서 Palermo(1982)는 5학년 학생들 스스로의 기질평가, 그들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그리고 그 학생들의 교사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적 유형에 대한 요구' 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수업능력과 적응에 대한 교사들의 평정, 그 학생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또래관계에 대한 급우들의 사회추정적 평가,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보고등을 연구자료에 포함시켰다. 이때,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에 비해 교사, 또래 및 어머니로부터 보다 호의적인 평정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예언력이 높은 변인은 어머니가 평정한 기질과 교사의 요구 사이에서 계산된 '적합성' 점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기질이 단순하게 개인내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있다. 어느 한가지 자료출처(예: 교사)에서 도출된 요구는 어머니나 교사가 관련된 맥락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 3의 독립적인 맥락(예: 또래)내에서도 적응에 대한 가장 유력한 예언변인이 되고있다.

또한 이에 후속된 연구에서는 DOTS를 이용하여 중 2학년(평균연령 = 13.5세) 학생들의 기질과, 그들의 교사와 또래 친구들이 지니는 행동스타일에 대한 요구를 측정하였다(J.V. Lerner, 1983). 이때, 환경과 중요

한 타자들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기질을 지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교사평정에서 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또한 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한 맥락상황에서의 ‘적합성’(fit)은 다른 맥락에서의 ‘적합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즉, 학생과 교사와의 ‘적합성’은 교사와 관련된 준거측정 뿐만아니라 또래관계에서 나타난 ‘적합성’에 의해서도 예언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또래와의 ‘적합성’은 위의 두가지 모두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통해, 한 개인의 기질(행동적 유형)이 환경적 요구에 부합될 때 심리사회적으로 보다 원활하게 기능한다는 사실을 증명되었다. 즉, 보다 우수한 ‘기질-요구 적합성’을 보이는 아동은 학교나 사회에 보다 나은 적응을 보였고, 학업성취나 부모-자녀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초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질, 부모나 또래의 요구 그리고 심리적 적응등 3자간의 관계연구를 통해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Talwar, Nitz & Lerner, 1990).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맥락과 상관없이 기질만을 단독으로 측정된 점수보다, “조화의 적합성”-여기서는 초기청소년의 기질과 그들의 부모나 또래의 요구들 사이의 적합성 즉, 기질에 대한 ‘맥락특유이론’(ethnotheories)-이 개인의 적응에 더 밀접히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Lerner등이 장기적으로 수행한 ‘펜실바니아 초기 청소년 변천연구’(Pennsylvania Early Adolescent Transitions Study, 일명 PEATS)에 포함되어 있는데, 6학년 초(평균연령 = 11.6세)에서 중 1학년 말까지 단기-종단연구(short-term longitudinal)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기질’과 그 기질에 대한 ‘요구’들은 DOTS-R의 9가지 기질속성들에 의해 측정되었고,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정, 그리고 그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평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러한 적응 측정치들과 ‘기질적합성’(temperament fit)점수들과의 관련성이, 적응과 단

독측정된 ‘기질’간의 관련성보다 더 높았다. 또한, ‘기질적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적합성 집단과 낮은 적합성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집단간의 적응점수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즉, 또래와 부모의 요구에 대해 낮은 적합성을 보인 청소년들은 ‘학업능력’에 대한 교사평정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문제행동’ 및 ‘학업문제’에 대한 부모평정에서 역시 문제가 많다는 평정을 받아 부정적인 측면을 일관성있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도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지지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기질적 속성 그 자체만이 그들의 기능적 적응에 대한 유용한 예측치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연애중인 커플

한편 Windle와 Lerner(1984)는 데이트중인 153쌍의 대학생(평균 연령 : 데이트쌍, 남=20.7세, 녀=19.8세 ; 무선쌍, 남=20.9세, 녀=19.7세)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질과 그가 ‘상대방의 기질’에 대해 지니고 있는 요구와 기대를 측정하였다. 기질의 5가지 차원 각각에 대하여 각 쌍내의 기질-기질 상관관계와, 그리고 그 기질에 해당하는 요구에 대하여, 요구-요구 상관관계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무선적으로 짝지워진 98쌍의 비교집단과 비교해보았다. 이들 연애중인 커플내에서는 5개 기질(주의집중폭대 주의전환성, 순응성, 활동수준, 규칙성, 반응성) 중 3개의 기질(순응성, 규칙성, 반응성)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5개의 요구-요구 상관관계 모두가 유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교집단인 ‘무선 2인관계’(random dyad)에서는 5개 기질-기질 상관관계중에서 오직 하나만(순응성) 유의하였다. 더 나아가 연애중인 커플들에게서 나타나는 8개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중에서 6개가 ‘무선 2인관계’의 상관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질-기질 적합성과 요구-요구 적합성이 한 개인과 그의 사회적 맥락내에 있는 ‘중요한 타인’(즉, 애인)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있다. 또한 연인들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일치성은, 연애관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조화의 적합성” 모델이 예상하는 것처럼, ‘기질적인 속성들간의 적합성’과 ‘요구들간의 적합성’이 젊은이들의 데이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 연령의 개인이 환경과 맥락 속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함에 있어, 그가 지닌 기질과 상대방의 기질에 대한 그의 요구사이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학업성적

한편 기질과 맥락의 적합성이 실제 학업능력과도 공변한다는 증거가 있다. 국민학교 4학년생(평균연령=10.0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보고로 평정된 기질차원들에서 교사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기질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과 적응에 대한 교사평정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가지의 표준화된 학업검사들 [Stanford Achievement Test for Reading]과 [Comprehensive Test for Basic Skills]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Lerner, Lerner & Zabski, 1985).

또다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국교 6학년에서 중 1학년까지, 연구시작 당시 평균연령 = 11.6세)을 대상으로 기질과 학업능력과의 관계를 통해 ‘직접효과’(direct effect) 모델과 ‘발달적 맥락’(developmental contextual) 모델을 비교해보았다(Talwar, Schwab & Lerner, 1989). ‘직접효과’ 모델은 사회적인 맥락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특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직 기질과 학업능력 간에만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발달적 맥락’ 모델에 의하면, 한 개인의 사회적인 맥락이 그의 생물학적, 유기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기능을 중재하기 때문에 기질과 성적간의 관계 외에도 교사평정 점수나 자기평정 점수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를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로 분석해본 결과, 기질적 요인들과 학업능력에 대한 교사평정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평정은 학생들 자신의 자기능력평가와 평균성적 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닌 개인적 특성이, 그들 자신과 사회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적 맥락’

모델이 지지되고 있다.

6) 정신건강

또한 개인의 기질과 맥락적 요구의 적합성을 알아 보기 위해, 초기 및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지각된 능력감, 그리고 우울증적 증세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Windle, Hooker, East, Lerner, Lerner & Lerner, 1986). 이 연구에서 국민학교 6학년생(평균연령=11.6세)과 대학생(평균연령=19.9세)의 기질과 적응간의 관계양상이 유사하였고, 4가지 ‘지각된 능력감’ 범주 [지적,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자기가치적(self-worth) 측면]로 구성된 「지각된 능력감검사」(Perceived Competence Scale, Harter, 1982)를 통해 측정된 ‘지각된 능력감 수준’과 ‘기질’ 사이의 관계는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교사의 “맥락특유이론”접수에서, 국민학교 6학년생의 높은 일반적 활동수준, 높은 수면 활동수준, 낮은 규칙성, 부정적 기분, 낮은 주의집중폭, 낮은 융통성, 그리고 낮은 접근성(즉, 높은 철회성)등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기질적 속성은 세가지 지각된 능력감—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자기가치적 능력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후기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부모와 또래가 갖고있는 “맥락특유이론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도 높은 수준의 일반적 및 수면 활동, 낮은 수준의 규칙성, 융통성, 기분, 주의집중폭, 그리고 접근성이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질 속성 중 규칙성, 융통성, 기분, 주의집중폭, 그리고 접근성에서의 높은 점수가 「지각된 능력감검사」의 인지적, 사회적 및 일반적인 지각된 능력감과 정적으로 연관된 반면, 우울증 척도의 높은 점수와는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울증 척도’가 사용된 이유는, 한 개인이 그가 처한 맥락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울증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Seligman, 1975; 윤진, 조공호, 1983 참조).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기질과 그를 둘러싼 맥락이 예기하는 요구 사이의 적합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질과 심리사회적 기능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사회적 기능에 있어 기질의 역할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Lerner & East, 1984). 아동이 높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맥락간의 '적합성'을 증진시켜주는 기제를 필요로 한다. 즉, 아동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감소, 수정 혹은 제거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특성을 주위의 맥락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조화시켜 나가는데, 이때 이러한 적합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기조절적'(self-regulatory) 기제이다.

만일 이와같이 부과된 요구들에 대해 조절적인 기제가 개인과 맥락 사이의 "조화의 적합성"을 제공해 준다면 잠재적인 스트레스 유발인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거나 그 강도가 감소할 것이다(Folkman & Lazarus, 1980; French, 1973; Lazarus, 1980; Lerner & Lerner, 1983; Thomas & Chess, 1977; Thomas, Chess & Birch, 1968). 반면, 개인이 "조화의 적합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중재적 속성'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물론 성인들의 경우에는 '인지'(cognition)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지만(Lazarus, 1980; Lazarus & Launier, 1978), 그런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유아의 경우에는 자신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자기조절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중심요소는 '기질'이 된다. 따라서 기질은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에 있어서 유력한 중재자가 되는데, 개인내적(intra-individual) 중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여타의 주요 맥락적 중재자들과도 상호작용한다.

이와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대처반응에 있어서 아동의 기질이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은 그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기반(예: 부모의 사랑)을 얻을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둘째, 기질은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양육자의 의존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까다로운' 아동의 양육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겨나

가기 위해, '순한' 아동의 양육자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한 아동의 기질은 그가 맥락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맥락적 특질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

기질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예: 부모)내에서 아동이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아동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중재한다. 특히, 그러한 중재와 조절과정에서 개인과 맥락적 요구와의 '적합성'이 중심변인이 되므로 "조화의 적합성"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Ⅲ. 논 의

1. 발달에 있어서 "조화의 적합성"이 갖는 의의

'기질'은 아동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과, 타인들로부터 서로 다른 반응(feedback)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Lerner & Busch-Rossnagel, 1981). 이러한 기질의 연구에는 몇가지 상이한 접근이 있는데(예: Buss & Plomin, 1984; Cattell, 1957; Goldsmith & Campo, 1981; Rothbart & Derryberry, 1981; Strelau, 1972), 그 접근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 다양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기질'이란 하나의 용어아래 분류되는 '행동 특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Thomas와 Chess에 의하면 '기질'이란 행동의 유형적인 요소(stylic component)로서, 한 개인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조화의 적합성" 모델은, '인간-환경사이의 최적의 적절성'과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질의 변화에 상응하는 환경적인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함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기질의 영향력은 어느 특정한 시기의 고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어느 특정 단계의 발달 또는 더 나아가 한 평생 발달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어떤 특정한 기질적인 특성은 발달의 초기에는 중요하지만 후기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로 초기에는 중요하지 않던 특성이 후기에 오히려 더 비중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수면과 섭생 습관을 갖는 아동은

그의 대장운동이 규칙적이어서 배변훈련이 쉬워지고, 어머니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하여 모자간에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면이 불규칙적인 아이들은 낮에 잠자고 밤중에 깨어있는 등 어머니로 하여금 불안정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여 따뜻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갖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들어면서부터는 '규칙성'(rhythmicity)은 그다지 중요한 기질특성이 아니다. 어쩌면 그와같은 매우 규칙적인 수면습관이 공부나 일을 하기위해 밤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한편 기질은 행동장애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발달적 정신병리에 대해 상당한 예언력을 가지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Rutter, 1982). 이때, '까다로운' 기질특성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한데,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강한 회피반응을 보이고 적응이 느리며 생물학적으로 불규칙적이므로 초기 사회화가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아동에게 흔히 "조화의 부적합성"(poorness-of-fit)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그런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압력, 위협, 회유등을 사용할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만일 아동이 정신지체 또는 신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부모 아래서 자랄때 행동장애가 나타날 위험성은 증가한다. 하지만 행동장애는 어느 특정한 기질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질패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만일 변화나 적응에 대한 환경적인 요구가 특정 아동의 기질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일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순한' 기질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정신병리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어느 기질패턴도 행동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완전히 면역된 것은 아니며, 동시에 반드시 정신 병리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특정한 기질패턴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fitness)에서 얻어지는 것이며(Dubo, 1965), 따라서 건강이나 질병은 주어진 물리적, 사회적 환경 내에서의 한 개인이 '어느 정도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논의할 때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개입 및 치료는 개인의 동기, 능력, 기질, 행동패턴, 그리고 그의 환경적 요구, 기대, 제약등 모

든 측면을 고려하는 하나의 "대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한 개인과 환경사이의 잠재적 및 실제적인 '부적합성'을 구체화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조화의 적합성" 모델은 심리상담 및 치료장면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항상 수동적으로 구석에 밀려나 있는 한 여자 아이를 상담한 결과 '더딘'(slow-to-warm-up)기질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하도록 부모와 교사에게 권고해 줄 수 있다. 한편 심한 독서 장애를 갖고 학급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자 아이는 그것이 사실상 방어적인 회피행동인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또한 신체 장애아들이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복잡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이해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조화의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부모나 양육자, 정신건강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일익을 담당하는 다른 전문가들-즉, 소아과 의사, 간호사, 교육자, 과의활동 지도자 등-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조화의 적합성" 개념은 유기체-환경의 상호작용 기제를 분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조화의 적합성"과 "조화의 부적합성"은, 유기체-환경 상호작용 과정의 역동성에 의해 '환경적 변화나 지속성', 또는 '개인의 변화나 지속성' 등 두가지 과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조화의 적합성 모델은 개인이 "모든" 환경적 맥락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즉, 조화의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한 개인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 잘 적응하는 반면, 다른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요구들이 반드시 건강한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환경에서의 적합성은 더 큰 발달적 의미에서 볼 때 오히려 부적응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적응상의 '요구'들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아동의 신체적 또는 행동

적 특성(예: 공격성)에 대하여 부모(또는 중요한 타인)가 지니는 태도, 가치, 기대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가 있다. 둘째, 부모 자신(혹은 중요한 타인 자신)이 지닌 행동적인 특성(예: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부과되는 요구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모와 적응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행동적 특성을 부모의 특성과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을 둘러싼 주위환경의 물리적인 특성들이 요구하는 바, 그 환경 내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기위해서 아동은 물리적인 압력(예: 집안에서의 소음수준, 동네의 비행 분위기)이 요구하는 행동적 특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 자신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얻는 귀환반응의 기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교사는 한 아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 가치 및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교사는 교실내에서 그 아동으로 인해 학급 전체의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주의전환성’을 기대한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을 잠자리 가게 하거나 식사하러 오게 할때 처럼 아이들이 오히려 적당히 주의가 산만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적 특성이 대체로 주의집중적이거나 또는 주의전환적인 것은 이들 두 맥락적 요구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 이렇게 볼때, 학교나 가정에서의 문제행동은 환경적 상황의 ‘요구’에 아동이 잘 부합하지 못한 결과 - 즉, “조화의 적합성”이 결여된 결과 -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요점은, 적응적인 심리적, 사회적 기능은 한 사람이 지닌 개인적 특성의 본질 그 자체나, 그가 기능하는 상황의 맥락적인 요구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개인의 특성이 특정 상황적 요구에 적합할 경우에는 ‘적응적인 결과’를, 반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적응’이나 ‘부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나 발달의 근원을 알아보고자 할 때, 유전의 영향이나 환경적 경험의 영향등 두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한 편에 치중하기보다는 유전적인 근원, 태아기 및 출산시의

영향, 그리고 출생 이후 일생동안에 겪는 경험들 모두가 한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과제
 ‘기질’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볼때, 유아와 아동의 정신건강(Chess & Thomas, 1984; Thomas & Chess, 1977), 스트레스로 부터의 회복능력(Werner & Smith, 1982), 신체적 질병과 입원에 있어서의 대처능력(Rutter, 1983), 부모-자녀 관계의 질(Crokenberg, 1981, 1986), 교실에서의 행동(Keogh, 1986; Pullis & Caldwell, 1982), 학업성취도(J. Lerner, 1983; J. Lerner, R.M. Lerner & Zabski, 1985),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Thomas, Chess, Sillen & Mendez, 1974) 등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질에 대한 연구는 발달 심리학 내에서 활발한 연구분야로 자리잡아 왔다. 한편,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그를 둘러싼 발달적 맥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조화의 적합성” 모델은 기질의 기능적인 의의에 대한 탐색과 임상적인 평가 및 처치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활성화시켜 왔다.

그러나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했던 시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론상의 한계때문인 듯 하다. 예를 들어 Plomin과 Daniels(1984)가 제안한 위계적인 중다회귀 분석절차(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HMR)로 검증해본 결과, “조화의 적합성” 모델보다는 “개성적”(personological) 모델, 즉 기질-적응 관계는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없고, 기질과 심리사회적 기능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하였다(Windle et al., 1986).

그 이유는, 첫째,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서 ‘요구특성’들이 ‘압력’(press)의 지표로서는 - 즉, 개인에게 압력으로 느껴지는 요구들을 측정하기에는 - 제한점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질 평정을 할때, 그에 해당하는 ‘요구’를 능가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낮은 정서상태는 “맥락특유이론”(ethnotheory) 측정에서 기질적인 ‘어려움’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상태를 보고할 때 중간 이상으로 평정하여 실제보다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여러가지 맥락들간에 '요구'들이 비교적 동질적이어서—즉 까다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기질적 속성이 맥락간에 거의 비슷하여—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질변인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국, 개인의 행동이 맥락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그 관계를 통계적인 용어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결함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단기횡단'(cross-sectional) 연구는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과 맥락 모두에서의 '변화'가 함께 고려될 때만이 '기질-맥락관계'의 '발달적'인 토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종단적'(longitudinal) 및 시기차이(time-lag) 방법을 통해 기질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설명되며 그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응해가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부딪치는 환경적 요구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화의 적합성" 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유아, 아동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여 성인기로 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화합, 노부모-중년 자녀 간의 사랑과 효도, 형제 자매간의 우의 등 여러가지 가족관계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때, 이런 관계를 '기질적인 궁합'(宮合)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추후 연구는 나날이 증가해 가는 부부갈등과 이혼율, 노부모-중년 자녀간의 세대차이와 심리적 갈등, 형제간의 재산 분쟁과 감정적 충돌을 해결하는데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료, 스승과 제자, 각종 사회단체의 조직원, 경영자와 근로자, 상사와 부하, 의사·

약사·간호사등 의료 전문가들과 환자, 성직자와 신도 등 모든 인간 관계에서 존재하는 기질적인 조화와 적합성의 문제 [즉, '의기투합(意氣投合)' 또는 '호흡맞추기']도 동시에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나날이 잃어져가는 대인간의 신뢰와 우정, 과격해지는 노사분규, 각종 조직체의 리더쉽과 갈등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대안 탐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기질이 성격과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며, 또는 성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가 하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아, 아동 발달에서 시작된 기질 및 조화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단순한 인생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의 심리적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기질과 맥락과의 적합성 연구가 점차 쌓여 갈 때, 우리는 '한 평생'에서의 개인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 과정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심치정(1979). 한국 유아의 기질성 경향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집*, 3, 연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17-33.
- 원영미(1987). 유아(4~7개월)의 기질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논문집*, 제22집, 595-613.
- 윤진(1984).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부부,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50, 연세대학교, 83-97.
- 윤진, 조공호 번역(1983). 무기력의 심리(Martin Seligman 원저,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1975) 서울: 탐구당.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희영(1991). 아동용 기질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최영희(1987). 5~8개월아의 기질조사 연구. *아동학회지*, 8(2), 1-15.

- 최영희(1988). 영아 기질 질문지의 타당성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 89-102.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ell, R. Q. (1968). A reinterpretation of the direction of effects in studies of socialization. *Psychological Review*, 75, 81-95.
- Bell, R. Q. (1971). Stimulus control of parent or caretaker by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 62-71.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Eds.),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2.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pp. 783-915). New York : Wiley.
- Chess, S., & Thomas, A. (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New York : Brunner /Mazel.
- Clark, B. (1975). The causes of biological diversity. *Scientific American*, 233, 50-60.
- Crockenberg, S.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Crockenberg, S.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child development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p. 53-73). San Francisco : Jossey-Bass.
- Darwin, C. (1872). *The Expression of emotions in men and animals*. London : John Murray.
- Dubos, R. (1965). *Man adapting*.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 Folkman, S., & Lazarus, R. S. (1983).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age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rench, J. P. R., Jr. Organizational stress and individual strain. In A. J. Marrow(Ed.), *The failures of success*. New York :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Graham, P., Rutter, M., & Gerge, S. (1983).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3, 328-339.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Keogh, B. (1986). Temperament and schooling : What is the meaning of goodness of fit?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psychosocial interactions in infancy and childhood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p. 89-108). San Francisco : Jossey-Bass.
- Lamb, M. E. (1978). Influence of the child on mental quality and family interaction during the prenatal, perinatal and infancy periods. In R. M. Lerner and G. B.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Lamb, M. E. (1980). Unfulfilled promises : A review of 「The dynamics of psuchological development」 by Alexander Thomas & Stella Chess. *Contemporary Psychology*, 25, 906-907.
- Lazarus, R. S. (1980).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L. A. Bond & J. C. Rosen (Eds.), *Competence and coping during adulthood*. Hanover, New Hampshire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Lazarus, R. S. & Launir, R. (1972). Stress-related

- tra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 : Plenum.
- Lerner, J. V. (1983). The Role of temperament in psychosocial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s :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3, 149-157.
- Lerner, J. V., & Lerner, R. M. (1983). Temperament and adaptation across life :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P. B. Baltes & O. G.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Lerner, J. V., Lerner, R. M., & Zabski, S. (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 :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125-136.
- Lerner, R. M. & Busch-Rossnagel, N. (1981).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 Conceptual and empirical bases.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Eds.),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Lerner, R. M., & East, P. L. (1984). The role of temperament in stress, coping,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early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5, 148-159.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2nd ed.). New York : Random House.
- Palermo, M. (1982). *Child temperament and contextual demands : A test of the goodness-of-fit model*. Unpublishe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Plomin, R. & Daniels, D. (1984). The interaction betwee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rrill-Palmer Quaterly*, 30, 149-162.
- Pullis, M., & Caldwell, J. (1982). The influence of children's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n teachers' decision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 165-181.
- Rutter, M. (1982). Introduction. In R. Porter & G. Collins(Eds.), *Ciba Foundation Symposium 89: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London : Academic Press.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1-41). New York : Plenum Press.
- Schneirla, T. C. (1957).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sychology. In D. B. Harris(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pp. 78-108).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uper, C. M., & Harkness, S. (1981). Figure, ground and gestalt : The cultural context of the active individual.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Eds.),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Talwar, R., Schwab, J., & Lerner, R. M. (1989).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and academic competence : Tests of "direct effects" and developmental contextual mode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 291-309.
- Talwar, R., Nitz, K., & Lerner, R. M. (1990). Relations among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parent and peer demands, and adjustment :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13, 279-29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Thomas, A., & Chess, S. (1980).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 /Mazel.

- Thomas, A., & Chess, S. (1981). The role of temperament in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s to their development. In R. M. Lerner & N. A. Busch-Rossnagel(Eds.), *Individuals as producers of their development :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al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as, A., Chess, S., Sillen, J., & Mendez, O. (1974). Cross-cultural study of behavior in children with special vulnerabilities to stress. In D. F. Ricks, A. Thomas, & M. Roff(Eds.), *Life history research in psychopathology* (pp. 53–69).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hood and youth*. New York : McGraw-Hill.
- Windle, M., Hooker, K., Lenerz, K., East, P. L., Lerner, J. V., & Lerner, R. M. (1984).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84–392.
- Windle, M. & Lerner, R. M. (1984). The role of temperament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young adults. *Merrill-Palmer Quarterly*, 30, 163–175.

Temperament and Human development

-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Goodness-of-fit model and its applicability -

Gene Yoon and Jungmee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theoretical review deals with the issue of the "Goodness-of-fit" between individuals' temperament and their contextual environment, which has great influen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First of all, it investigated the definition of temperament and the history of temperament studies, 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NYLS) by Thomas and Chess and their stylistic approach toward temperament. In the main body, the definition of the "Goodness-of-fit" model, and the 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 were discussed. And some specific applications of the model in the areas of cross-cultural comparis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ademic performance, and mental health, were also thoroughly reviewed.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model on human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were discussed.